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김유미, 강수찬, 권기남, 서유진, 성승훈, 손정림, 손현아, 신유라, 김은희\*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 Correlation Betwee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You-Mi Kim, Su-Chan Kang, Ki-Nam Kwon, Yoo-Jin Seo, Seong-Hun Sung

Jeong-Lim Son, Hyeon-Ah Son, Yu-Ra Shin, Eun-Hee Kim\*

Dept. of Nursing Scienc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January 22, 2018; Revised February 3, 2018; Accepted February 10, 2018)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elf -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whether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ffect career maturity.

**Methods:** The data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0 were collected from April 1, 2016 to April 15, 2014 in 184 students at the four-year college of Nursing in J city.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dicate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maturity ( $r=.428$ ,  $p<.001$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R=.442$ ,  $p<.001$ ) and majors' satisfaction ( $r=.605$ ,  $p<.001$ ) either. likewise, career maturity and career matur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maturity and career satisfaction.

**Conclusio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nhance and improve adaptation to major through conversations in conjunction with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from the entrance, and maintaining intimate and solid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and professors, also, the students and senior of whom, leading to intensify positive implication to future career.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satisfaction, Nursing College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 [iuknurse@nate.com](mailto:iuknurse@nate.com)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요즘 현대사회는 많은 분야의 급속한 변화로 직업의 형태가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직업에 대한 전망은 과거에 비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sup>1)</sup>. 20대는 성인으로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며 진로의 선택 또한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다.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대학생 시기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줌으로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진로선택으로 인해 삶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진로선택이 중요하다. 직업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sup>2)</sup>.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개인의 적성 및 진로에 대한 계획 없이 대학에 입학 하여 직업 선택 등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sup>3)</sup>.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공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재학 중에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sup>4)</sup>. 많은 대학생들은 전과, 졸업 후 재입학, 취업 후 적성과 맞지 않는 직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이직 또한 계속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남아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에서 2,5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진로정보 수집 및 활용하는 능력인 진로성숙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sup>5)</sup>. 마찬가지로 간호과 대학생들은 본인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취업률이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졸업 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6)</sup>. 간호대학생들 중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학과 내에서 겪게 되는 적성의 불일치는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제시되어있다<sup>7)</sup>.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학 교육 및 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역할

을 수행하는 사회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8)</sup>. 심은숙(2003)은 전공만족에 따라 진로성숙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즉,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하는 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학과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하였다<sup>9)</sup>.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sup>10)</sup>,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sup>11)</sup>.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의 발달 수준을 가리키므로 직업을 알아보고, 진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자리를 잡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직업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발달과 업무에 대처해 나가는 태도적, 인지적인 준비도를 진로성숙도로 보았다<sup>9)</sup>.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라고 제시했다<sup>4)</sup>.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로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며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러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0)</sup>.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방향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12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84명으로 나타났다.

### 2.3. 연구 도구

#### 1)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일과 자아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발달정도<sup>3)</sup>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권은숙(20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sup>9)</sup>. 총 25개 문항으로 하위 영역으로는 설문 문항의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로 하고 '아주 그렇다'를 5로 하는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권은숙(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계획성은 .82, 현실성은 .91, 결정성은 .89, 확고성은 .92, 자립성은 .93 이었으며<sup>9)</sup>,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 이었다.

####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정의하였다<sup>11)</sup>.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으로 하위 영역으로는 전공의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관계에 대한 만족,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 정도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s 등(1996)이<sup>13)</sup> 구성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이은진(2001)이 변안한 것을 간호학과 1인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은진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및 진행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먼저 J시 Jeogkr의 해당 간호대학 학과장에게 전화로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직접 방문과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서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5분 가량 소요되었고, 설문응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응답지는 동봉한 봉투를

이용하여 밀봉한 상태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최초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90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95%), 그 중 부적절한 설문 응답지 6부를 제외하고 총 18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로 구하였다.
- 2)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자료수집 전,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설명서에 연구의 목적, 설문 소요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중 원치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

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공지되었다. 이에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대상자에 한해 서면으로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184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1세' 60.3%, '22세' 17.4%, '23세' 7.1%, '24세' 6.5%, '25세 이상' 8.7% 였으며 성별은 '남자' 21.2%, '여자'는 78.8% 였다. 종교유무는 '있다' 34.2%, '없다' 65.8% 였으며 건강상태는 '양호' 69.6%, '보통' 28.3%, '나쁨' 2.1% 였다. 학업성적은 '4.0 이상' 31.5%, '3.0~3.9' 64.1%, '2.0~2.9' 4.4%, '2.0 미만' 0% 였으며 대인관계는 '좋음' 60.3%, '보통' 38.6%, '나쁨' 1.1% 였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취업률' 46.7%, '적성' 23.4%, '고교 성적' 2.7%, '부모님, 타인의 권유' 17.4%, '좋은 인상' 9.8% 였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8.7%, '보통' 38.6%, '불만족' 2.7% 였다. 취업하고 싶은 지역은 '서울' 28.8%, '경기, 인천' 15.2%, '강원도' 1.6%, '경상도' 50.5%, '전라도' 1.1%, '충청도' 0.5% '제주도' 0%, '기타(해외)' 2.2% 였다. 희망 월급(만원)은 '150이하' 0.5%, '150~200' 12.5%, '200~250' 49.5%, '250~300' 21.2%, '300 이상' 16.3% 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 (n=184)

		N	%
Age	21	111	60.3
	22	32	17.4
	23	13	7.1
	24	12	6.5
	Above of 25	16	8.7
Gender	Male	39	21.2
	Female	145	78.8
Religion	Yes	63	34.2
	No	121	65.8
Body Condition	Good	128	69.6
	Normal	52	28.3
	Bad	4	2.1
Grade	Above 4.0	58	31.5
	3.0~3.9	118	64.1
	2.0~2.9	8	4.4
	Below 2.0	0	0
Interpersonal Relation	Good	111	60.3
	Normal	71	38.6
	Bad	2	1.1
Motive	Job	86	46.7
	Aptitude	43	23.4
	Grade of High school	5	2.7
	Advice of Parents	32	17.4
	A Pleasing Impression	18	9.8
Career Satisfaction	Good	108	58.7
	Normal	71	38.6
	Bad	5	2.7
Location of Employment	Seoul	53	28.8
	Gyeonggido	28	15.2
	Gangwondo	3	1.6
	Gyeongsangdo	93	50.5
	Jeonlado	2	1.1
	Chungcheongdo	1	0.5
	Jejudo	0	0
	Foreign Country	4	2.2
Wish for Salary(₩10,000)	Below 150	1	0.5
	150~200	23	12.5
	200~250	91	49.5
	250~300	39	21.2
	above 300	30	16.3
	Total	184	100.0

3.2.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신뢰도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신뢰성 검증결과 전공만족도 .9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92, 진로성숙도 .86으로 높았다.

Table 2. Test-Reliability (n=184)

	Question number	Cronbach's $\alpha$
Career Satisfaction	34	.90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25	.92
Career Maturity	25	.86

3.3.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3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의 평균은 3.56±.50점 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혀 자신이 없다'(0점)에서 '매우 자신이 있다' (8점)의 9점 척도 2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8±.55점 이었다.

진로성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 1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2.64±.44점 이었다.

Table 3. Analysis of Caree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n=184)

	Value	M±SD
Career Satisfaction	1-5	3.56±.50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1-5	3.28±.55
Career Maturity	1-5	2.64±.44

3.4.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신뢰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성숙도( $r=.428,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 $r=.442, p<.001$ ), 전공만족도( $r=.605,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tual Relation of Reliability (n=184)

	Career Maturity	Career Satisfaction
	r(p)	r(p)
Career Satisfaction	.428(<.001)	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442(<.001)	.605(<.001)

$p<.001$

IV. 고찰

간호대학생과 관련한 진로성숙도의 선행문헌들의 경우, 권윤희, 곽오계(2010)의 연구에서 간호과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MBTI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MBTI 활용 소집단 협력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군이, 대조군과 결과 차이가 나타나( $t=11.97, p<.001$ ) 진로성숙은 2.36점에서 2.91점으로, 대조군은 2.37점에서 2.38점으로 평

균점수가 변화하였다.

간호과 3학년 졸업반 2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5)</sup>에서는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간호과 지원동기로 높은 취업률 때문에 지원한 학생( $F=3.15, p=.025$ ), 현재 취업 준비도에서 많은 준비가 된 학생( $F=2.69, p=.032$ )에서 진로능력강화프로그램 전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로성숙도는 간호대학생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을 신중히 생각,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로써 앞으로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간호대학 85개의 남자 간호 대학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sup>16)</sup>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 및 간호전문 직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간호전문 직관과 전체 간호사 이미지는  $r=.82(p<.001)$ 였으며, 하위 영역 또한 ‘사회 참여’( $r=.75, p<.001$ ), ‘자질’( $r=.68, p<.001$ )이 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 직관과 전공 만족도는  $r=.71(p<.001)$ 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하위 영역은 ‘일반 만족’( $r=.66, p<.001$ ), ‘인식 만족’( $r=.63, p<.001$ )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재학 중인 102명에게서 전공 만족도, 성적체감, 성 고정관념의 관계를 연구<sup>11)</sup>한 결과, 남자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전공 만족의 차이는 나이에 있어서는 24세 미만 집단의 전체 전공 만족 평균이  $3.80(\pm .53)$ 으로 24세 이상 집단의 평균  $3.55(\pm .4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2.194, p<.05$ ), 학제와 관련해서는 3년제 집단의 전체 전공 만족 평균이  $3.85(\pm .47)$ 로 4년제 집단의 평균  $3.59(\pm .55)$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18, p<.05$ ).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체 전공 만족과 직업/외형적 성 고정관념 간에는 매우 낮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7, p<.05$ ).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양성성 집단의 전공 만족도가 1~5점 중 평균  $3.94(\pm .34)$ 로 남성성 집단의 평균

$3.76(\pm .42)$ 과 여성성 집단의 평균  $3.70(\pm .67)$ , 미분화 집단의 평균  $3.52(\pm .5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적체감 유형에 따른 성 고정관념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공만족도는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태도, 가치, 신념 및 욕구 등이 영향을 주며, 간호 전문 직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련연구에서 진로동기, 진로 성숙도,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 선택 몰입, 자아존중감, 진로태도성숙도, 셀프리더십, 진로스트레스, 진로 정체성, 사회적지지, 정서 조절양식등이 변수로 나타났다.

D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569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을 연구<sup>17)</sup>한 결과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진로결정몰입간의 상관관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r=.373, p<.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몰입( $r=.321, p<.001$ ),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몰입( $r=.193, p=.003$ )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533명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 $r=.428,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 $r=.442, p<.001$ ), 전공만족도( $r=.605, p<.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 자신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자기에 대한 평가 등이 낮거나 높을 때 직업선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성 연구이다. J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진로성숙도, 전공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학 시부터 교수와의 상담 및 진로지도를 통한 대화의 기회를 높여 교수-학생 간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선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입학 초기 학생 개개인별 적성, 흥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전공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향후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1. Choi YJ. The effects of sense of values-major satisfaction-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Seokyeong University. 2015.
2. Woo SH.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based on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Konkuk University. 2012.
3. Joung HY, Park OL. A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ense of Value,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Level of Beauty Care Major College Students. J. kor. Soc. B&A 2009;10(1):35-49.
4. Kim G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2000;1(1):7-20.
5. Park MJ. The Influence of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n Course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Kyung Hee University. 2008.
6. Jang TJ.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Keimyung University. 2015.
7. Kim JY.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Sungshin University. 2015.
8. Oh DJ, Choi CJ, Kwon BE, Park YH.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5;11(1):64-72.
9. Kwon ES, Song J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Degre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ccording to Holland Occupational Personality Types. Asian J Beauty Cosmetol. 2015;13(1):85-93.
10. Kim KM. A study on the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nyang University. 2015.
11. Lee DJ.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2004.
12. Taylor KM, Betz NE.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83;22(1):63-81.
13. Betz NE, Klein KL, Taylor KM.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6;4:47-57.
14. Kwon YH, Kwag OG. Effects of a Ready Planned Small Group Collaboration



- Learning Program through MBTI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 16(2):229-238.
15. Kim YH.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013;13(12):817-828.
16. Lee SL.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jou University. 2011.
17. Lee KA, Kim JH.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5;12(1):42-49.